

월간 실적보고

2019.01

Summary of 2019 Jan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16.1% YoY**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2.9% YoY**

- 패키지 **-15.7%** / 티켓 **-9.3% YOY**

(14.3만명 / 11.6만명)

3.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YoY)

- 유럽 **+11.7%** 중국 **+1.2%**

- 미주 **-14.7%** 동남아 **-14.8%** 남태 **-20.3%** 일본 **-32.3%**

4. 예약률 (YoY)

- 2월 **+10.3%** 3월 **-9.8%** 4월 **+1.2%**

1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YoY -16.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YoY -12.9%, 송객인원 25.8만명

패키지 인원 YoY -15.7%, 14.3만명. 전반적인 여행수요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역성장. 작년 1월 높은 성장률(YoY +20.0%)을 기록해 기저(High Base) 부담.

티켓 인원 YoY -9.3%, 11.6만명. 2018년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8년 1월 실적 (YoY +22%)에 대한 기저(High Base) 부담. 그러나 2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송객 달성.

1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9	142,740	115,616	258,356
2018	169,245	127,485	296,730
YOY	-15.7	-9.3	-12.9

패키지 YoY : 2018년 11월 -2.4% → 2018년 12월 -11.3% → 2019년 1월 -15.7%

티켓 YoY : 2018년 11월 -0.1% → 2018년 12월 +3.4% → 2019년 1월 -9.3%

총송객 YoY : 2018년 11월 -1.5% → 2018년 12월 -4.7% → 2019년 1월 -12.9%

지역별 성장 (YoY)

유럽 +11.7% 중국 +1.2% 미주 -14.7% 동남아 -14.8% 남태 -20.3% 일본 -32.3%

유럽 +11.7%, 전년동월 YoY +36.5%의 높은 기저(High Base)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최근 6개월동안 성장 지속(최근 6개월 평균 성장률 YoY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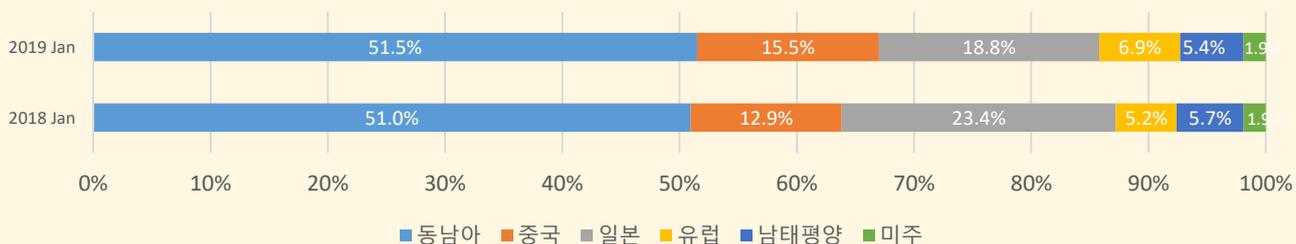
중국 +1.2%, 2018년 4월부터 10개월간 성장 지속.

동남아 -14.8%, 일본 -32.3%, 전년도 높은 기저(High Base) 부담. 더딘 수요 회복세.

미주 -14.7%, 전월(2018년 12월) 성장률(-33.1%)대비 개선, 하와이 노선 공급 재개로 인한 회복.

남태 -20.3%, 전월(2018년 12월) 성장률(-35.5%)대비 개선. 사이판 지역 태풍 피해로 부터 회복, 정상화 진행 중.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19년 2월	19년 3월	19년 4월
예약률	+10.3	-9.8	+1.2

* 2019.01.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YoY)

2019년 2월. 두자리 수 예약률 유지. 중국과 유럽이 성장 주도. 하와이 공급 재개 또한 긍정적 영향.

2019년 3월. 직전월 발표한 예약률 대비 변화 미비. 여전히 일본지역의 둔화가 큰 영향.

2019년 4월. 플러스 예약률로 시작. 전년 동일 시점 예약률(18.2.1 발표)은 +25.1%로 높은 기저(High Base) 부담.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따른 침체된 여행수요의 회복이 더딤. 특히나 일본지역의 수요 회복이 가장 더딘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 이슈의 추가 악재 발생. 동남아와 일본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반면 유럽지역의 최근 성장세는 매우 긍정적. 19년 1분기 유럽지역(특히 스페인)의 인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 올해 1분기까지는 작년 7월부터 둔화되었던 시장 수요 흐름이 유지될 전망. 전년 4월 YoY+14.3% 성장으로 비교적 높은 기저(High Base)가 있음에도 19년 4월 예약률이 플러스로 시작하며 여행수요 회복 기대.